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0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강명수 정보통신정책과장(02-2110-4801), 박중수 사무관(4796)

9월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한 140.7억불

- IT수출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140억 달러帶 수출 돌파
- 반도체, 패널의 감소세 완화와 TV, 태블릿PC, 스마트폰 수출 증가로 3개월 만에 증가세 회복

지식경제부는 9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한 140.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6일 밝혔다. 유럽 재정 위기 확산,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140억 달러帶 수출'을 기록하며, 작년 10월 141억 달러 수출에 이은 사상 두 번째 많은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올해 9월까지 IT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한 1,175.5억 달러로 동기간(1~9월) 최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1년		2010년	
		9월P	1~9월P	9월	1~9월
수 출	전체산업	471.2 (19.6)	4,159.5 (23.2)	394.1 (16.2)	3,376.4 (30.1)
	IT산업	140.7 (4.6)	1,175.5 (3.8)	134.5 (13.7)	1,132.0 (31.8)
수 입	전체산업	456.8 (30.5)	3,935.2 (27.2)	350.0 (17.6)	3,094.9 (34.4)
	IT산업	69.5 (6.5)	613.3 (12.0)	65.3 (12.0)	547.6 (21.3)
수 지	전체산업	14.4	224.3	44.1	281.5
	IT산업	71.1	562.1	69.2	584.4

품목별로는 반도체(45.9억 달러, △3.8%)와 디스플레이 패널(27.6억 달러, △3.7%) 수출 감소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DDI(Display Driver IC) 등 **시스템반도체(21.3억 달러, 39.1%↑)는 월간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帶 수출을 달성**하며 반도체 수출 회복을 주도하였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일본, 대만 등 경쟁업체 감산과 對중국 수출 회복으로 수출 감소는 크게 둔화되었다.

※ 반도체 수출 증가율(%) : ('11.1) 23.9 → (3) 10.6 → (4) −0.6 → (7) −12.5 → (8) −13.3 → (9) −3.8
※ 패널 수출 증가율(%) : ('11.1)4.0 → (2) −3.3 → (6) −8.3 → (7) −21.2 → (8) −21.2 → (9) −3.7

휴대폰(20.4억 달러, △3.1%)은 '11년 2분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출하: 28.3%, 매출: 24.0%)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피처폰(2.7억 달러, △36.6%) 수출 감소로 '10년 9월 이후 12개월 만에 소폭 감소하였다.

TV(7.8억 달러, 18.1%↑) 수출은 3D TV,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과 TV부분품(6.6억 달러, 16.4%↑)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였다.

태블릿PC는 글로벌 업체의 특허 견제에도 불구하고 2.3억 달러 수출로 전월대비 13.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전년 동월대비 24.6% 증가하였다.

IT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비교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9
IT 전체	128.2	111.6	134.8	132.9	133.5	132.3	130.8	130.7	140.7
증감률	(16.3)	(4.7)	(6.0)	(5.5)	(4.5)	(1.6)	(△3.5)	(△2.4)	(4.6)
패널	25.6	22.6	27.0	26.3	27.0	26.4	25.2	25.2	27.6
증감률	(4.0)	(△3.3)	(△4.9)	(△7.3)	(△7.0)	(△8.3)	(△21.2)	(△21.2)	(△3.7)
반도체	40.9	36.5	44.7	41.5	41.7	42.1	40.4	41.1	45.9
증감률	(23.9)	(9.2)	(10.6)	(△0.6)	(△4.9)	(△3.9)	(△12.5)	(△13.3)	(△3.8)
메모리반도체	21.8	18.8	23.4	22.2	22.1	21.3	18.2	17.5	18.6
증감률	(11.3)	(△2.8)	(2.6)	(△9.6)	(△15.3)	(△15.8)	(△31.1)	(△37.4)	(△30.0)
시스템반도체	13.8	12.2	15.1	13.7	14.3	15.2	15.9	17.4	21.3
증감률	(36.9)	(16.4)	(22.2)	(11.5)	(10.8)	(14.8)	(12.8)	(22.1)	(39.1)
휴대폰	23.8	19.8	21.7	23.2	24.4	22.2	21.8	20.7	20.4
증감률	(11.9)	(5.6)	(5.8)	(31.7)	(38.9)	(17.9)	(15.1)	(10.2)	(△3.1)
TV	6.4	5.9	7.1	6.3	6.0	6.4	8.5	7.7	7.8
증감률	(18.9)	(16.0)	(11.1)	(△8.6)	(△8.4)	(△2.0)	(22.0)	(10.2)	(18.1)
2차전지	3.2	2.8	3.8	3.8	4.1	4.4	4.0	4.0	4.3
증감률	(26.2)	(7.0)	(13.5)	(22.7)	(34.2)	(27.3)	(28.6)	(37.2)	(33.0)
컴퓨터 및 주변기기	5.7	4.9	6.4	5.9	5.5	6.3	6.7	7.2	7.3
증감률	(△6.3)	(△18.2)	(△6.7)	(△12.3)	(△11.8)	(△3.1)	(15.7)	(35.9)	(24.6)

국가별로는 미국(15.6억 달러, △2.8%), EU(12.3억 달러, △23.3%) 수출은 감소했으나 일본(6.8억 달러, 6.7%↑), 중국(홍콩포함, 66.7억 달러, 8.8%↑), 중남미(8.1억 달러, 7.0%↑), 대양주(0.9억 달러, 3.7%↑)등 개도국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은 사상 최대치인 66.7억 달러(당초 최대치 : '11. 8월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對중국 IT수출 비중은 49.4%를 기록하였다.

※ 對중국(홍콩 포함)의 IT수출 비중(%) : ('09) 41.5 → ('10) 45.0 → ('11.1) 44.3 → (3) 46.7 → (9) 49.4

'11년 9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45.9	(△3.8)	27.6	(△3.7)	20.4	(△3.1)	140.7	(4.6)
중국(홍콩포함)	25.2	(△3.2)	20.0	(11.1)	5.5	(21.3)	66.7	(8.8)
미국	2.0	(△34.9)	0.1	(△74.5)	7.6	(△6.9)	15.6	(△2.8)
일본	2.8	(△17.4)	0.2	(△76.5)	1.4	(389.2)	6.8	(6.7)
EU	2.2	(△43.1)	3.5	(△28.8)	1.2	(△56.0)	12.3	(△23.3)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40.2억 달러, 4.4%↑)과 네트워크 장비(4.2억 달러, 173%↑)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6.5% 증가한 69.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IT수지는 전산업 흑자(14.4억 달러)를 상회하는 7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지 흑자에 기여하였다.

최근 IT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대만, 일본 등 경쟁 업체의 적자 누적 심화로 향후 국내업체와의 세계 시장점유율 등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수출 감소도 차츰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달 수출이 소폭 감소한 휴대폰은 LTE 폰 등 하이엔드 신제품이 해외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감소세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 세계시장점유율(%, '08→'10→'11.상) : (D램) 49.0→58.1→63.0, (LCD) 46.1→ 51.3→52.5

<붙임 : 세부자료>

< 세부자료 >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 34

3. 수입 및 수지 동향 ····· 37

4. 2011년 9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39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 시장조사기관 SA는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을 글로벌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증대로 당초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13.3% 성장 예상

○ 신흥시장과 스마트폰, 저가폰 중심의 시장 성장이 지속될 전망

※ 휴대폰 시장 세부 품목별 성장률 전망(SA, 2011.4, 출하량 기준) : (저가폰) 10.3%, (피처폰) -1.6%, (스마트폰) 45.3%

※ 휴대폰 지역별 성장률 전망(SA, 2011.9, 출하량 기준) : (북미) 7.4%, (서유럽) 1.2%, (아태) 15.9%, (중남미) 27.3%, (동유럽) 5.0%, (중동/아프리카) 15.9%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단위 : 억 대, %)

구분 (억대, %)	기존 전망('11. 6월)			수정 전망('11. 9월 전망)				2011년 비교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2	
세계시장	11.7	13.6	15.5	11.9	13.6	15.3	16.3	0.4%p↓
증감률	-0.6%	16.3%	13.7%	-0.6%	13.8%	13.3%	6.2%	

자료 : SA 2011.6, 2011.9

▶ 안드로이드 등 범용OS 비중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HW 성능의 차별화(LTE, HD, Quad Core 등)가 하반기 이슈로 부상할 전망

※ 안드로이드 OS 세계시장점유율('11.1Q→2Q, %, Gartner) : 36.4 → 43.4

○ 범세계적인 LTE 서비스 확대로 국내 및 글로벌 업체의 LTE 폰 출시가 예정

○ 스마트폰의 멀티태스킹, 컴퓨팅 능력에 대한 수요 확대로 Dual Core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대폭 강화된 Quad Core 신제품 출시가 예상

▶ 한편, 애플의 저가형 아이폰4 출시설 등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경쟁도 점차 가속화 될 전망

○ 애플의 저가폰 출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저변 시장 확대, HW 판매를 통한 매출 성장 도모, 중국 등 신흥 시장 공략 등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

○ 국내 업체의 경우 이미 연초에 중저가 스마트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등 신흥시장 점유율을 최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내업체의 지역별 스마트폰 점유율('11.1Q→2Q, %) : (중국) 11.4→ 16.4, (중남미) 17.0 → 21.6, (러시아) 5.5 → 7.6

▶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인 스마트폰 구현과 차별화된 제품 스펙을 바탕으로 전략 모델이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세계 1위에 진입

'11.2분기 주요 업체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대, 억 달러, %)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	휴대폰 전체		출하량	(증감률)	휴대폰 전체		매출액	(증감률)
1	Apple	20.3	(141.7)	1	Nokia	88.5	(-20.3)	1	Apple	128.1	(156.3)
2	삼성전자	19.2	(519.4)	2	삼성전자	74.0	(16.0)	2	삼성전자	102.4	(48.1)
3	Nokia	16.7	(-29.8)	3	LG전자	24.8	(-19.0)	3	노키아	70.8	(-16.2)
4	RIM	12.5	(11.6)	4	Apple	20.3	(141.7)	4	HTC	41.3	(125.0)
5	HTC	12.1	(132.7)	5	ZTE	19.6	(86.7)	5	RIM	36.1	(7.5)
6	LG전자	6.2	(588.9)	6	RIM	12.5	(11.6)	6	LG전자	29.5	(1.9)
국내 업체		25.4	(535.0)	국내 업체		101.1	(4.6)	국내 업체		131.9	(34.4)
세계시장점유율		**23.1**	**1위**	**세계시장점유율**		**28.3**	**1위**	**세계시장점유율**		**24.0**	**1위**
전체		110.0	(76.3)	전체		358.0	(11.9)	전체		548.8	(12.8)

자료 : SA 2011.7, 2011.8

2) 수출 여건 및 수출 증가 원인

▶ '해외 생산 후 직수출' 물량 증가는 휴대폰 수출 증가에 부정적 요인

○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해외 생산 비중은 최근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확대로 둔화세에 접어듦

○ 스마트폰 단가 경쟁 심화와 국내 업체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 대응 강화로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은 '11.2분기 이후 다시 확대 추세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 ('08) 45 → ('09) 58.2 → ('10) 64.2→ ('11.1Q) 63.1→ (2Q) 72.2

○ 다만, 해외 생산 확대로 스마트폰 수출도 둔화세에 접어들고 있어 수출 증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향후 중저가 중심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휴대폰 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이 필수

3) 수출 동향

▶ 9월 휴대폰 수출은 '11년 2분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출하: 28.3%, 매출: 24.0%)의 위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9월 이후 12개월 만에 소폭 감소 기록

○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대응 강화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피처폰(2.7억 달러, △36.6%)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

○ 피처폰은 전년 동월대비 36.6% 감소했고, 스마트폰은 0.7%, 부분품은 9.9% 증가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5.5억 달러, 21.3%↑)은 부분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고, 일본(1.4억 달러, 389.2%↑)은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세 자릿수 수출 증가

○ 반면,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7.6억 달러, △6.9%)의 감소율은 완화되었으나 감소세를 이어갔고, 중남미(0.1억 달러, △19.5%), ASEAN(1.5억 달러, △9.8%) 등 신흥국가 수출은 해외 거점 생산(중저가폰 중심) 확대로 감소세 전환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휴대폰 (부분품 포함)	21.1 (△16.1)	26.5 (2.9)	26.8 (8.9)	22.4 (21.7)	23.8 (11.9)	19.8 (5.6)	21.7 (5.8)	23.2 (31.7)	24.4 (38.9)	22.2 (17.9)	21.8 (15.1)	20.7 (10.2)	20.4 (△3.1)
스마트폰	8.3 (560.0)	10.8 (268.1)	11.8 (240.5)	10.2 (349.2)	9.5 (454.9)	9.2 (398.6)	8.3 (262.1)	12.2 (519.3)	12.6 (325.8)	10.0 (99.4)	7.6 (41.7)	6.5 (3.9)	8.3 (0.7)
피처폰	4.3 (△66.7)	7.0 (△45.0)	6.7 (△45.3)	5.1 (△40.2)	4.9 (△47.8)	3.9 (△57.3)	4.3 (△57.5)	3.1 (△64.1)	3.7 (△46.6)	3.5 (△49.1)	3.2 (△44.8)	2.6 (△45.0)	2.7 (△36.6)
부분품	8.5 (△22.4)	8.8 (△13.9)	8.4 (△6.5)	7.1 (△6.7)	9.4 (△7.8)	6.7 (△14.8)	9.1 (11.7)	7.8 (13.1)	8.2 (5.7)	8.6 (26.0)	10.9 (41.5)	11.6 (48.3)	9.4 (9.9)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시장조사기관 iSuppli는 올해 반도체 성장률을 하향 조정('11.6월 : 3,259억 달러 7.2%↑ → '11.9월 3,133억 달러, 2.9%↑)

○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PC, TV 등 IT 제품의 구매 위축과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가 전망치 하향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당분간 IT 매출 부진과 반도체 저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도체 시장 전망



'2011. 6월 전망 '2011. 9월 전망

자료 : iSuppli, 2011.6, 2011.9

▶ 국내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D램 가격이 제조원가의 절반(해외

경쟁 업체 기준)에도 못 미치는 등 최악의 상황 지속

○ 미세공정 전환을 통한 D램 공급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태블릿 PC 보급 확대에 따른 PC 시장 잠식 및 수요 감소로 수급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이 급락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불황으로 상위 몇 개사만 살아남는 세계 메모리 업계의 구조 재편으로 연결

※ 미세공정에서 앞서고 모바일D램과 서버용D램 등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스페셜 D램 비중을 늘려온 국내 기업들이 2강을 지키고 나머지 기업이 2약 체제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전망

▶ 한편, 반도체 업체들은 미세공정 경쟁과 함께 D램의 뒤를 이을 차세대 메모리 개발 경쟁이 본격화

○ 반도체는 현 세대 칩을 양산하기 이전에 차세대 칩을 개발하는 게 관행이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기술 개발, M&A,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하게 진행

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 및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 경쟁 현황

업체	현황
SAMSUNG	• 20나노급 D램 양산시작, 차세대 M램 개발사 미국 그란디스 인수 ※ 그란디스 : 차세대 반도체 'M램'의 원천 특허 보유 업체
hynix	• '11년 말 20나노급 D램 개발, 내년 초 양산 계획 • 도시바와 M램 공동 개발 중 ※ 도시바의 원천 기술과 하이닉스의 양산 기술을 합쳐 2014년 M램을 상용화 목표
ELPIDA	• '11.8월 초 20나노급 시제품 생산
TOSHIBA	• 2014년 M램 상용화 계획
IBM	• '11.6월 말 차세대 P램 개발 → 2016년 상용화 예정

자료 : 조선비즈, 2011.9.22

주 1) D램 : PC에 주로 쓰는 메모리반도체.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빠르지만 전원을 끄면 저장 정보가 소멸

2) M램 : 전류와 자기장을 가하면 물체의 자성(磁性)이 변하고 저항값도 변하는 원리를 활용한 반도체. 전력 소모가 D램의 1000분의 1에 불과하고 처리 속도도 빠름

3) P램 : 물질에 전류를 가하면 내부 구조가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반도체. 낮은 전압에서도 작동해 생산 비용이 저렴.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작업을 1000만번 가량 반복 가능

▶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반도체 업체의 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는 기회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

○ CPU의 경우 Intel의 독점시대에서 Qualcomm, TI, 삼성전자 등이 신흥 강자로 부상하였으며,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분야(모바일 D램,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국내업체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

○ 삼성전자의 내년도 시스템반도체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추월할 전망인데, 이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기회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 올해 투자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가 5.8조 원, 시스템 반도체가 4.5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내년에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이 6.8조 원이며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7.3조 원 규모로 시스템반도체가 5,000억 원 가량 상회

○ 삼성전자는 '12년도를 분기점으로 메모리반도체 위주에서, 모바일용 시스템반도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인텔과 경쟁 본격화 돌입

IT 패러다임 변화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 IT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 반도체 업체 >



<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추이 및 전망 >

자료 : 메리츠 증권, 전자신문 재가공, 2011.9.26

▶ 국내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반도체를 넘어서 제2의 도약의 발판 마련을 시기 도래

○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 등 시스템반도체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망품목의 지속적 발굴과 과감한 설비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내 반도체 산업 SWOT 분석

강점	약점
• 메모리반도체 시장 지배력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분야 원천 기술과 양산 기술 • 스마트폰, 자동차 등 시스템 반도체 전방산업 포진	• 시스템반도체 원천 기술 부족 • IDM 업체 중심의 성장 구조 • 팹리스·파운드리 등 반도체 분업 체계 미흡
기회	**위협**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시장 개화 • 메모리반도체 한계기업 정리(예상) • 모바일용 시스템(AP, CIS 등) 반도체 수요 증가 •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강력한 육성 의지	• 공정 미세화 기술 점차 평준화(→현재 기술로는 선폭을 10나노 미만으로 줄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 중국의 국가주도의 반도체 개발 및 투자 • P램(IBM), R램(삼성전자), M램(하이닉스) 3차원 반도체(인텔)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 경쟁 심화

자료 : NIPA. 2011.9

2) 수출 여건

▶ 삼성전자, 반도체업계 최초로 20나노급 낸드플래시와 D램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선두업체로서의 경쟁우위 강화

○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인 16라인의 본격 가동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가격급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은 최대 생산설비를 갖췄을 때 월 10만~12만 장의 300㎜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데 반해 16라인은 최대 설비구축 시 월 20만 장 이상의 300㎜ 웨이퍼 생산 가능

※'10.5월 착공해 1년 3개월 만에 가동에 들어간 메모리 16라인은 약 19만㎡ 규모의 12층 건물로 낸드플래시를 주력으로 양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생산라인. 이곳에서는 20나노급 고속 낸드플래시를 12인치 웨이퍼로 월 1만장 이상 생산

○ D램 2위인 하이닉스도 올해 하반기까지 30나노급 양산 비중을 40%로 늘린 뒤 20나노 후반급 제품을 기획해 올해 4분기에 개발 완료할 계획

삼성전자 D램 신공정 양산 일지

공정	양산시기	주요 기록
90나노	2002. 9	
80나노	2003. 9	
60나노	2005.10	
50나노	2006. 9	
40나노	2009. 1	
30나노	2010. 1	
20나노	2011. 9	



자료 : 서울경제, 2011.9.22/동아일보, 2011.9.23

○ 이로써, 국내 업체들은 미세공정 기술력이 경쟁업체보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앞서며 일본·대만 등의 업체들과 시장점유율 격차를 더욱 벌릴 전망

※ 일본 엘피다는 지난 5월 "7월부터 25나노급 D램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제품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

▶ 사상 최저치를 경신해오던 PC용 D램 가격이 모바일 D램 생산 증가와 후발업체의 감산으로 0.5달러대에서 횡보

○ 대만·일본 업체들에 이어 세계 D램 4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미국 회계기준 4분기(6~8월) 영업 손실 5,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로 반전

※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미세공정은 50나노급에 머물고 있으며, 0.5달러대는 생산 원가 절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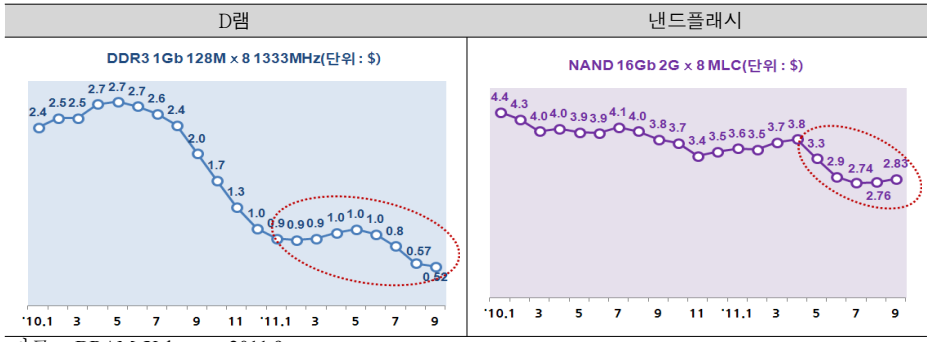
○ D램 시황이 당분간 호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난야, 파워칩에 이어 엘피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의 업체들도 감산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

○ 특히 미세공정,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측면에서 국내 업체에 비해 현격한 경쟁 열위를 보이고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의 퇴출 가능성이 더욱 상승

※ 국내 업체의 20나노급 미세공정 전환과 D램의 2Gb 생산 비중 확대는 대만기업을 더욱 압박

○ 낸드플래시 가격은 삼성전자·애플·HTC 등의 고성능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낸드플래시 수요 증가에 힘입어 9월 소폭 반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RAMeXchange, 2011.9.

3) 수출 동향

▶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시스템반도체의 선전으로 전월대비 11.6% 증가한 45.9억 달러로 기록, 향후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

※ 대만의 메모리반도체 한계기업 퇴출이 임박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용 시스템반도체 수요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반도체 수출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

○ D램(9.5억 달러, △45.5%) 수출은 '10.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수요 부진과 지속된 가격하락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0억 달러를 하회

○ 반면, 낸드플래시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출시와 맞물려 단가가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수출도 전년 동월대비 28.2%, 전월대비 5.7%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 D램과 차별화된 행보 지속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CIS·DDI 등의 제품 출하 확대, 파운드리 및 패키징 등 반도체 전·후공정 물량증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39.1% 증가한 21.3억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월간기준 사상처음 20억 달러帶 돌파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반도체	47.7	45.6	41.3	42.5	40.9	36.5	44.7	41.5	41.7	42.1	40.4	41.1	45.9
	(48.6)	(32.8)	(18.1)	(23.5)	(23.9)	(9.2)	(10.6)	(△0.6)	(△4.9)	(△3.9)	(△12.5)	(△13.3)	(△3.8)
메모리	26.6	24.5	20.3	21.4	21.8	18.8	23.4	22.2	22.1	21.3	18.2	17.5	18.6
	(65.8)	(37.6)	(4.4)	(7.2)	(11.3)	(△2.8)	(2.6)	(△9.6)	(△15.3)	(△15.8)	(△31.1)	(△37.4)	(△30.0)
D램	17.5	16.4	12.7	12.6	11.5	11.0	12.8	12.5	12.5	12.2	10.1	9.8	9.5
	(86.9)	(56.1)	(2.9)	(△8.9)	(△16.2)	(△14.7)	(△14.8)	(△22.2)	(△28.7)	(△27.0)	(△43.3)	(△48.1)	(△45.5)
낸드	2.2	2.1	2.2	2.5	2.5	2.2	2.70	2.9	3.2	2.4	2.6	2.7	2.9
	(4.3)	(△8.9)	(11.0)	(39.9)	(20.8)	(8.3)	(10.9)	(13.9)	(34.7)	(1.1)	(8.4)	(9.4)	(28.2)
시스템반도체	15.3	15.1	15.6	15.4	13.8	12.2	15.1	13.7	14.3	15.2	15.9	17.4	21.3
	(18.4)	(15.1)	(25.9)	(38.5)	(36.9)	(16.4)	(22.2)	(11.5)	(10.8)	(14.8)	(12.8)	(22.1)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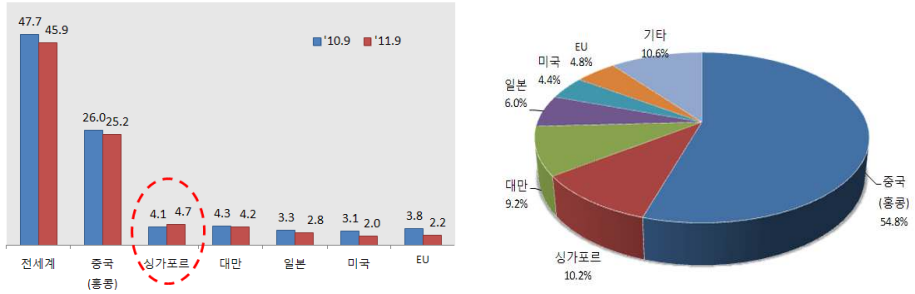
▶ (지역별) 對중국(홍콩포함)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의 선전에 힘입어 금액기준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둔화세 완화

※ 對중국(홍콩) 반도체 수출 추이(억 달러) : ('11.1) 21.8→(3)24.4→(5)22.6→(7)22.5→(8)22.2→(9)25.2

○ 싱가포르(4.7억 달러, 14.4%↑)를 제외한 중국(홍콩 포함, 25.2억 달러, △3.2%), 대만(4.2억 달러, △2.9%), 미국(2.0억 달러, △34.9%), 일본(2.8억 달러, △17.4%), EU(2.2억 달러, △43.1%)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은 IT 소비심리 위축과 맞물려 여전히 부진

반도체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및 비중('11.9월)

국가(지역)별 수출(억 달러) / 수출 비중(%)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선진 시장의 경기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형 LCD 패널 시장은 '11년 3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대형 LCD 패널 시장 규모 및 전기 대비 증감율(억 달러 / %) : ('10.3Q)214.2 / -6.5 → (4Q)198.6 / -7.3 → ('11.1Q)174.3 / -19.4 → (2Q)193.8 / -15.4 → (3Q^e)214.4 / 10.6 → (4Q^e)229.4 / 7.0(DisplaySearch, 2011.8.25)

○ 중국의 국경절(10. 1-3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등의 TV 수요 확대 등에 대비한 패널 수요의 증가로 전년동기 수준 이상으로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11년 대형 LCD 패널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11.1Q)-19.4 → (2Q)-15.4 → (3Q^e)0.1 → (4Q^e)15.5(DisplaySearch, 2011.8.25)

- 대형 LCD 패널 시장은 선진 시장의 경기 불안에 따른 전방 산업의 수요 불안 등으로 '10년 3분기부터 '11년 2분기까지 하락세가 지속
-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하향 조정 등에 따른 가격 안정화 추구, 중국의 국경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12년 런던 올림픽 수요 등에 대비한 패널 구매 증가가 예상
- '09년 2월부터 실시한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13년 1월까지 실시)이 산동 등 일부 지역에서 '11년 11월말까지 앞당겨 종료됨에 따라 선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정책 유지 지속과 소진 정도, 중국의 패널 생산 확대 움직임에 따른 패널 가격 약세화 지속 등이 시장 회복의 관건

○ 대형 LCD 패널 시장의 성장은 LED 등 프리미엄급 제품의 성장이 관건

- '10년 기준 37.7%의 비중을 보이던 LED 패널은 '11년 1분기 이후 50% 이상의 비중을 보이며 대형 LCD 패널 시장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대형 LCD 패널 중 LED 패널 시장 비중(%) : ('10.1Q) 24.9 → (2Q) 36.9 → (3Q) 44.2 → (4Q) 45.6 → ('11.1Q) 51.4 → (2Q) 56.6 → (3Q^e) 61.0 → (4Q^e) 68.3(DisplaySearch, 2011.8.25)

- 즉, 대형 LCD 패널 시장은 기존 CCFL 시장을 LED 패널이 빠른 속도로 대체하며 기술적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CCFL/LED 패널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11.1Q)-47.8 / 66.0 → (2Q)-41.8 / 29.9 → (3Q^e)-29.9 / 37.9 → (4Q^e)-32.6 / 73.0(DisplaySearch, 2011.8.25)

▶ 한국 업체들의 우위가 돋보이는 대형 LCD 패널 시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소형 패널 시장

○ 대형 LCD 패널 시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패널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

- '11년 2분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성장으로 중소형 패널 시장은 전년동기(49.6억 달러) 대비 23.2% 증가한 67.8억 달러 기록

- 우리나라는 LCD 패널 중심('11년 2분기 시장 비중 84.3%)인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11년 2분기 기준 일본(38.4%), 대만(26.7%)에 이어 3위의 점유율(25.2%) 차지

- 특히,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시장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의 합종연횡을 통한 반격이 예상되고 있어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소형 LCD 패널 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시장 지위가 열위에 있지만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OLED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며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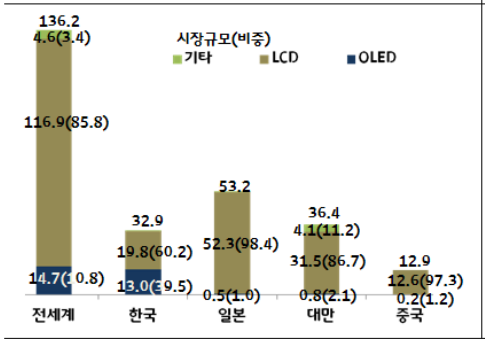
※ 중소형 패널 시장 중 OLED 패널 비중(%) : ('10) 6.6 → ('11.1Q) 9.2 → (2Q) 12.3(DisplaySearch, 2011.9.30)

※ 우리나라의 중소형 패널 시장 점유율(%) : ('10) 21.6 → ('11.1Q) 23.0 → (2Q) 25.2(DisplaySearch, 201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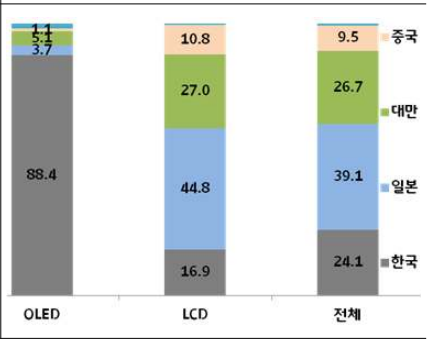
'11년 상반기 주요국의 중소형 패널 제품 비중 및 제품별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단위 : 억 달러, %)

< 주요국별 중소형 패널 제품 비중 >



< 제품별 주요국의 시장 점유율 >



자료 : DisplaySearch(2011.9.30)

2) 수출 여건

▶ 중국의 LCD 패널 수요 증가세 및 국내 업체들의 제품 다각화는 수출에 긍정적

○ 중국 로컬 TV 업체들은 국경절(10.1-3)을 앞두고 3D 패널 중심으로 구매량 증가

- 시장 조사 기관 Displaybank에 따르면, 6월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던 중국 로컬 TV 업체들에 대한 패널 공급량이 8월 350만대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10% 상승

※ 중국 6대 TV 업체들의 패널 구매량 증감 추이(%) : ('11.1월)-40 → (2월)-15 → (3월)71 → (4월)6 → (5월) 23 → (6월)-6 → (7월)-6 → (8월)10(Displaybank, 2011.9)

- 특히, 중국 로컬 TV 업체들은 3D TV, LED TV 등 프리미엄급 제품의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

※ 8월 중국 6대 TV 업체들의 3D TV 패널 및 LED TV 패널 구매량은 전월대비 각각 77.2%, 24.7% 증가

- 다만, 전체 공급량에 있어 대만 업체들의 비중이 국내 업체들에 비해 다소 앞선 상황이어서 국경절 수요에 대비한 패널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패널 제조사별 공급 비중(%) : CMI(31.9), LG디스플레이(21.4), AUO(20.6), 삼성전자(20.2)

○ 한편, 전방 산업의 수요 불안 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다각화 전략 추진은 수출에 긍정적

- 국내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43인치, 48인치 LCD 패널을 중국 로컬 TV 업체인 TCL, 하이센스 등에 공급하는 등 제품 다각화 추진

※ 삼성전자는 40인치급 TV 패널 시장에서 40인치와 46인치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해 왔으나 경쟁 업체들의 42인치, 47인치 제품에 대비한 비슷한 가격의 '크기 프리미엄' 전략 선택

- 향후 대만 업체들도 연내에 39인치, 50인치 TV 패널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수요 부진 탈출을 위한 업체간 크기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소비 시장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크기 중심의 제품 다각화는 패널 업체들의 불황기 전략

▶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은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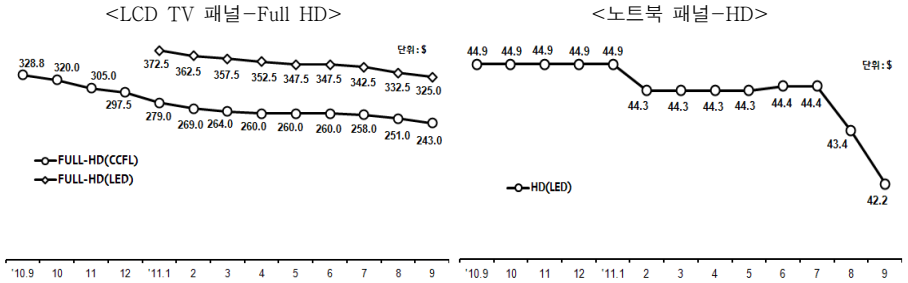
○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정책 유지 등으로 패널 가격 하락은 지속

-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선진 시장의 TV 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트 업체들의 선행 재고 비축의 불필요성, 저가형 모델 중심의 프로모션이 관측되고 있어 TV 패널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성장에 따른 노트북 등 기존 제품 시장 잠식 등으로 노트북용 패널 가격 등도 하락세에 직면

※ 다만, 기존 PC 업체들의 All-In-PC, 울트라 노트북 등의 제품 다각화를 통한 성장 전략이 향후 모니터용 패널, 노트북용 패널 등의 가격 반등에 일정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1.9

3) 수출 동향

▶ 9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선진 시장 수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전방 수요 감소와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3.7% 감소한 27.6억 달러 기록

- 다만, 지속적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등의 TV 수요 확대에 대비한 패널 공급 증가로 전월대비 수출은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증감율(전월대비, %) : ('11.1월)△3.4 → (2월)△11.9 → (3월)19.5 → (4월)△2.5 → (5월)2.7 → (6월)△2.4 → (7월)△4.6 → (8월)0.0 → (9월)9.6

▶ **(지역별)** 국경절 수요 대비 중국(홍콩포함) 수출은 증가한 반면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은 감소

○ 9월 중국(홍콩포함)은 3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어 전년동월 대비 11.1% 증가한 20.0억 달러 기록

-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선진 수요 시장인 EU(3.5억 달러, △28.8%)와 유럽 지역 생산 거점 동유럽(3.2억 달러, △33.3%), 북미 지역 생산 거점 중남미(2.1억 달러, △19.1%) 수출 감소

※ 다만, 성수기 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부터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1년 8월 대비 9월 각 지역별 수출은 증가(EU 14.5%↑, 동유럽 12.9%↑, 남미 36.8%)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패널	28.6	28.9	27.3	26.5	25.6	22.6	27.0	26.3	27.0	26.4	25.2	25.2	27.6
(증감율)	(8.9)	(8.7)	(9.5)	(0.8)	(4.0)	(△3.3)	(△4.9)	(△7.3)	(△7.0)	(△8.3)	(△21.2)	(△21.2)	(△3.7)
부분품	2.8	2.7	2.9	2.9	2.7	2.3	3.2	3.3	2.9	3.0	2.8	2.6	2.8
(증감율)	(△6.0)	(4.8)	(15.6)	(7.7)	(△2.3)	(△14.6)	(△3.9)	(△9.6)	(△7.5)	(△3.8)	(△19.3)	(△14.9)	(1.2)

4 TV

1) 시장 환경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서유럽의 재정 위기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세계 평판TV 시장 전망을 하향 조정

○ DisplaySearch 최근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세계 평판 TV 시장 규모는 금액 기준 1,115억 달러, 출하량 기준 2억 2,275만 대로 예상

- 이는 금년 1분기 전망 대비 금액 기준 약 4.3%, 출하량 기준 약 5.3% 하향 조정된 수치

※ 1분기 전망 자료 대비 금액 기준 약 50억 달러, 출하량 기준 약 1,252만 대 하향 조정

- 이에 따라 금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금액 기준 △1.4% 역성장이 예상되며, 출하량 기준 6.1% 성장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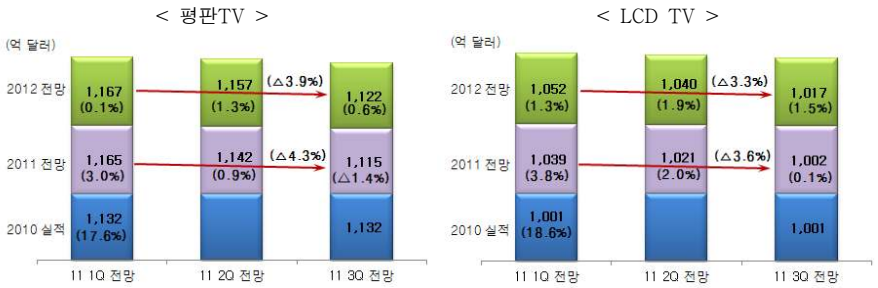
※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금액 기준 17.6%, 출하량 기준 31.6% 성장

○ 전년 35억 달러에 불과했던 3D TV 시장은 252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이에 따라 전체 TV 시장에서 3D TV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3%에서 '11년 22.1%로 확대 예상

※ 출하량 기준으로도 전년 233만 대 규모에서 2,257만 대규모로 성장 예상. 출하량 기준으로 전체 TV 시장에서 3D TV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0.9%에서 '11년 9.1%로 확대 예상

세계 평판TV 시장 전망 변화 (매출 기준)



자료 : DisplaySearch, 2011.9.

▶ 구글TV2, 올 연말 Sony 등을 통해 출시 예정

○ 9월 13일, '인텔 개발자 포럼 2011'에서 에릭 휴거스(Eric Huggers) 인텔 부사장이 연말경에 구글TV2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힘

- 구글TV2는 기존 구글TV에 비해 쉬운 사용자 환경, 안드로이드 앱 시장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등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스마트TV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지난해 10월 Sony, Logitech 등이 출시한 구글TV는 사용이 불편한 인터페이스(키보드 형태의 리모콘), 방송사업자의 견제에 따른 콘텐츠 확보 실패 등으로 고전

○ 국내 기업에 TV 시장 주도권을 내준 채 복권을 노리고 있는 Sony, 북미 저가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Vizio 등이 구글TV2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

2) 수출 여건

▶ 국내 업체의 세계 3D TV 시장 지배력 갈수록 확대

○ 세계 TV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3D TV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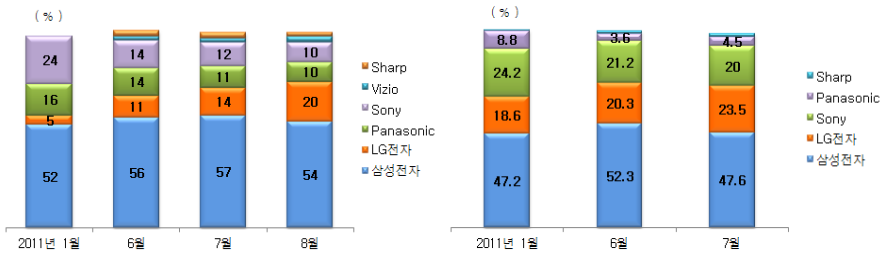
-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가 확고한 가운데 LG전자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반면 일본 기업들의 위상은 점차 약화

-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3D TV 시장 점유율은 금년 1월 57% 수준에서 8월에는 74%까지 확대(NPD)

- 이 외에 유럽 61.0%, 아시아 71.1%, 독립국가연합(CIS) 79.8%, 아프리카 76.2%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금년 7월 기준, GfK)

※ 참고로 금년 2분기 기준 국내 기업들의 세계 3D TV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46.1%, 출하량 기준 46.6% (DisplaySearch)

메이저 기업의 북미/아시아 3D TV 시장 점유율 (판매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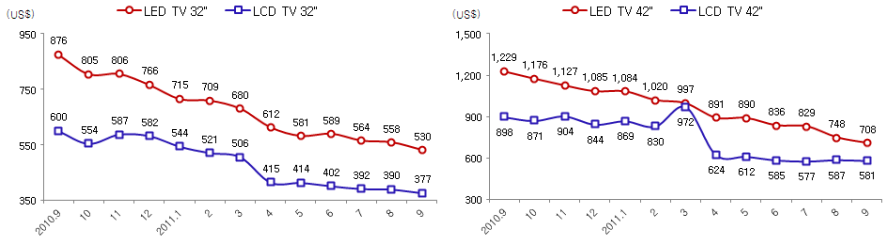


자료 : 전자신문(2011.9.22) 재구성 (원소스: NPD, GfK)

▶ TV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가격 하락 지속

- 미국, 유럽 등의 경기회복 지연, 그에 따른 시장 전망치의 잇따른 하향 조정 속에 메이저 기업들의 점유율 경쟁, 프리미엄 TV의 수요 확대 마케팅 등이 맞물리며 TV가격 하락 지속
- 연초 대비 가격 하락률: LED TV 42" (△34.7%), LED TV 32" (△25.9%)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1.8.

3) 수출 동향

▶ 9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7.8억 달러로 집계

○ 수요 부진이 지속되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회복과 해당 지역 생산거점에

대한 수출 증가세 유지, 동월 TV 수출의 85.3%(6.6억 달러)를 차지하는 부분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전체 TV 수출 증가율 확대

▶ (지역별) 미국(136.1%↑), 대양주(40.7%↑), 아세안(29.6%↑), 남미(23.7%↑), 중국(9.0%↑)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아프라카(△17.2%), 중동(△7.2%) 등에의 수출은 감소

○ 전월 성장 반전한 對미국 수출 성장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북미 생산 거점인 중남미 지역 수출도 증가세 유지. 반면 對중국 수출 성장 폭은 다소 둔화

- 對미국 수출의 폭발적 성장은 부분품 수출의 급격한 확대(전월대비 2.4배)에 기인

※ 對미국 수출 증가율 : '11.7월 △12.7% → 8월 20.1% → 9월 136.1%

※ 對남미 수출 증가율 : '11.7월 43.7% → 8월 20.8% → 9월 23.7%

※ 對중국 수출 증가율 : '11.7월 △52.7% → 8월 35.9% → 9월 9.0%

○ 하락세를 이어가던 對EU 수출이 올 들어 처음으로 성장 반전한 가운데 이 지역 공급 거점인 對동유럽 수출도 함께 성장세로 전환

※ 對EU 수출 증가율 : '11.7월 △3.1% → 8월 △27.9% → 9월 3.2%

※ 對동유럽 수출 증가율 : '11.7월 △6.5% → 8월 △30.6% → 9월 2.5%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칼라TV (부분품 포함)	6.6 (22.1)	6.2 (26.9)	5.6 (21.8)	5.2 (3.0)	6.4 (18.9)	5.9 (16.0)	7.1 (11.1)	6.3 (△8.6)	6.0 (△8.4)	6.4 (△2.0)	8.6 (22.0)	7.7 (10.2)	7.8 (18.1)
LCD TV	0.6 (9.8)	0.6 (△11.7)	0.6 (△7.0)	0.5 (△16.3)	0.5 (4.4)	0.5 (46.5)	0.6 (39.5)	0.7 (33.3)	0.7 (25.7)	0.8 (11.8)	0.9 (48.6)	0.9 (59.3)	0.8 (39.9)
PDP TV	0.3 (7.5)	0.3 (43.3)	0.3 (17.6)	0.2 (5.6)	0.3 (31.0)	0.3 (56.1)	0.3 (28.1)	0.3 (8.2)	0.3 (△9.2)	0.2 (△12.8)	0.2 (△18.6)	0.3 (16.9)	0.3 (9.7)
TV 부분품	5.7 (25.5)	5.3 (33.3)	4.8 (28.3)	4.5 (7.8)	5.6 (20.9)	5.2 (12.9)	6.2 (8.6)	5.3 (△13.0)	5.0 (△11.2)	5.3 (△3.2)	7.4 (21.6)	6.5 (5.8)	6.6 (16.4)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PC) 경기불황 및 태블릿PC의 인기로 인해 '11년~'12년 상반기 PC 수요 정체 예상

○ Gartner는 지난 2분기에 전망한 '11년 세계 PC 시장 성장률 9.3%를 3.8%(3억 6천 4백만 대)로 하향 조정, JP.Morgan 등 금융권 기관에서도 '11년 및 '12년 PC 시장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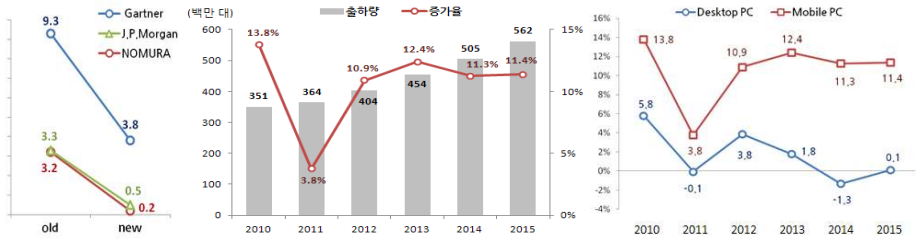
※ '11년 PC 시장 성장률 전망 변화: (Gartner) 9.3 → 3.8, (J.P.Morgan) 3.3 → 0.5, (NOMURA) 3.2 → 0.2
※ '12년 PC 시장 성장률 전망 변화: (Gartner) 12.8 → 10.9, (J.P.Morgan) 9.8 → 4.4, (NOMURA) 5.8 → 4.7

○ 서유럽 및 미국 시장의 비관적 경기전망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기업 및 개인 소비자 수요 감소, 법인 및 정부 부문의 교체 수요 저조가 PC 시장 회복이 더딘 원인

○ 한편, '12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생산성을 강화한 고성능 PC 및 새로운 모바일 PC 제품군(울트라북 등)이 태블릿 PC와 차별화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10.9% 성장, 약 4억대 출하 예상

세계 PC 시장 전망

<'11년 PC 시장 전망> <'10-'15년 세계 PC 시장 전망> <데스크탑 PC vs 모바일 PC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J.P.Morgan, NOMURA(20011.9.) 재구성

▶ (태블릿PC) '11년 태블릿PC 시장은 전년대비 261% 성장, 약 6,363만 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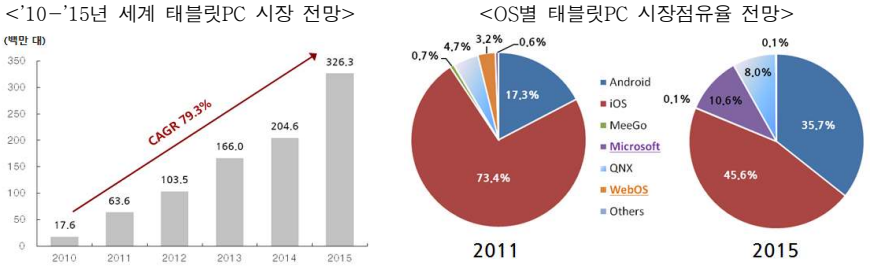
○ 태블릿PC 시장은 아이패드의 지속적인 인기와 다양한 제품 출시에 힘입어 '15년까지 약 3억 2630만대 출하에 이르는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아이패드2가 시장점유율 73.4%로 세계 태블릿PC 시장을 압도(약 4,670만대)하였으나 전년대비 점유율 하락('10년 시장점유율 83%)
-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 출시가 이어짐에 따라 안드로이드 태블릿PC의 점유율(17.3%, 약 1,100만대)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출시될 MS의 윈도 기반 태블릿PC에 의한 소비자 수요 변동 가능성도 제기됨

※ 2015년 OS별 태블릿PC 시장점유율 전망에는 HP의 WebOS 사업 중단과 MS의 OS(윈도우8) 기반 태블릿PC 출시가 반영 됨

세계 태블릿PC 시장 전망

<'10-'15년 세계 태블릿PC 시장 전망> <OS별 태블릿PC 시장점유율 전망>



자료 : Gartner(2011.9)

2) 수출 여건

▶ (모바일 PC) 글로벌 모바일 PC 시장은 고급형 프리미엄 노트북 PC와 저가형 '울트라북'을 중심으로 태블릿PC와 차별화 된 시장을 공략할 것

○ 삼성전자는 고급화 전략으로 현재 7위인 글로벌 모바일 PC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하는 등 프리미엄 PC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 디자인 프리미엄 노트북 PC '시리즈9'에 이어 IFA 2011에서는 '시리즈7 크로노스', '슬레이트 PC 시리즈7' 등 고성능 프리미엄 노트북 PC '시리즈7'의 신제품 노트북 PC 공개
- 시리즈9로 프리미엄 시장 진입, 하반기에 시리즈7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

※ 삼성전자 노트북 PC 판매 : ('08) 270만 대 →('09) 580만 대→('10) 1,030만 대→('11) 1,700만~1,800만 대 예상

○ 태블릿PC와의 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노트북 PC 시장의 고성능, 경량화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가격 경쟁까지 점화할 '울트라북' 출시

- Intel, 9월 인텔개발자포럼(IDF)에서 올 11월부터 출시될 '울트라북' 공개. 2012년 말까지 울트라북이 노트북 PC 시장의 40%를 점유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울트라북'이란 두께 20㎜ 미만, 무게는1㎏대, 가격대 1,000달러 이하이면서 오랜 배터리 구동 시간을 갖추고 인텔 i5나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인텔의 고성능 노트북을 일컬음

※ IFA 2011에서는 ASUS, Acer, LENOVO, Toshiba 등 주요 PC 제조업체가 울트라북을 공개

○ 향후 국내외에서 출시하게 될 1,000달러 이하의 울트라북 제품군은 Apple의 999달러 '맥북에어(Macbook Air)'를 정면 겨냥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

- 현재 ASUS, SONY, HP, Dell 등이 울트라북 2세대 제조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짐

※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보급형 경량 노트북 '시리즈3'를 699달러로 책정, 미국에서 예약 판매 중

주요 PC업체의 울트라북 제품



<삼성전자, '시리즈3'>



<LENOVO, 아이디어패드 'U300s'>



<Toshiba, 포테제 'Z830'>

▶ (태블릿PC) 저가형 태블릿PC 제품 출시 확대로 인한 가격경쟁 점화

○ 태블릿PC 제품 선택에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 북미 시장에서 99달러에 재고정리 중인 HP '터치패드' 연일 매진, Vizio의 299달러 태블릿PC 판매 증가, RIM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태블릿PC '플레이북' 가격 인하 시작

- 미국 태블릿PC 사용자가 추천하고 싶은 태블릿 PC 브랜드 2위에 중국의 저가형 태블릿PC 제조업체 Zenithink가 선정(삼성 3위)

※ HS iSuppli가 美 소비자 1,404명을 대상으로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태블릿PC 브랜드를 조사(2011.7.)

※ Zenithink는 2007년 설립된 중국 IT업체로 현재 200달러 이하의 저가 태블릿PC 제품 생산에 주력

○ Amazon, 199달러 태블릿PC '킨들 파이어(Kindle Fire)' 공개

- Amazon CEO 제프 베조스는 28일 뉴욕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태블릿PC 신제품 '킨들 파이어' 공개, 사전 예약 진행 중이며 내달 15일부터 정식 판매

- 제품 최대 강점은 낮은 가격. Amazon의 클라우드 서비스 무료 지원을 통해 전자책 1,800만권을 포함한 영화, 음악, 잡지 앱 등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한편, 카메라 미탑재, 제한적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이 단점으로 지적

- 낮은 가격과 콘텐츠 중심의 생태계를 무기로 아이패드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

○ 갤럭시탭 10.1은 499달러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들 저가형 태블릿PC와의 경쟁이 불가피

저가형 태블릿PC 제품



<Zenithink의 'C91'>



<Vizio의 'VTAB1008'>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세

○ 9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컴퓨터(태블릿PC 포함)와 프린터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한 7.3억 달러 기록

※ 삼성전자, 2분기 전 세계 PC 시장 점유율 8위, 성장률 1위를 기록(310만 대 출하, 전년동기 대비 31.3% 성장)

※ 태블릿PC 수출(억 달러) : ('11.3) 0.66→(3) 1.21→(4) 1.25 →(5) 0.71→(6) 1.41→(7) 1.70→(8) 2.00→(9) 2.27

- HDD 수출 하락(0.3억 달러, 76.7%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보조기억장치(1.2억 달러, 18.5% 감소) 수출은 감소세이나,

- 지난 4월 처음으로 HDD 수출을 추월한 SSD는 9월 HDD 수출액의 3배에 달하는 0.9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 지속

○ 레이저 프린터와 부분품을 중심으로 한 프린터(1.2억 달러, 21.6% 증가)부문도 수출 증가에 기여

○ 해외 생산 확대와 단가하락으로 부진했던 모니터 수출이 지난달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4.3%) 소폭 성장, 1.7억 달러를 기록

▶ (지역별) 중남미와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증가

○ 수출 비중 상위 국가인 중국(홍콩 포함, 2.5억 달러, 32.2%↑), 미국(1.3억 달러, 21.9%↑), EU(1.3억 달러, 19.1%↑)에 대한 수출 증가 지속

○ 인도(39.4%↑)와 ASEAN(36.7%↑), 중동(181.2%↑) 및 아프리카(92.3%↑) 등 신흥 시장에서의 수출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컴퓨터 및 주변기기	5.9 (△7.4)	7.3 (11.0)	7.8 (18.3)	6.5 (△1.2)	5.7 (△6.3)	4.9 (△18.2)	6.4 (△6.7)	5.9 (△12.2)	5.5 (△11.8)	6.3 (△3.2)	6.7 (16.1)	7.2 (35.8)	7.3 (24.6)
컴퓨터 (부품포함)	1.6 (18.3)	2.7 (81.1)	3.5 (101.8)	1.9 (27.9)	1.4 (9.2)	1.2 (△15.8)	2.2 (45.8)	1.7 (22.9)	1.2 (△11.5)	1.8 (△0.6)	2.4 (87.2)	2.8 (142.6)	2.9 (82.6)
보조 기억장치	1.5 (△6.9)	1.5 (△8.5)	1.3 (△20.7)	1.3 (△9.7)	1.5 (△20.5)	1.2 (△27.7)	1.0 (△42.1)	1.3 (△28.2)	1.4 (△12.2)	1.4 (8.5)	1.4 (8.2)	1.3 (△12.9)	1.2 (△18.5)
프린터	1.0 (△2.9)	1.1 (21.0)	0.9 (18.0)	1.0 (8.7)	1.1 (22.1)	0.8 (△10.3)	1.1 (20.8)	1.1 (5.2)	1.0 (11.1)	1.1 (10.4)	1.1 (10.3)	1.0 (11.4)	1.2 (21.6)
모니터	1.6 (△27.7)	1.6 (△26.2)	1.7 (△20.3)	1.9 (△22.3)	1.5 (△21.5)	1.4 (△18.0)	1.7 (△29.3)	1.5 (△33.0)	1.5 (△27.7)	1.6 (△27.0)	1.5 (△25.8)	1.8 (12.9)	1.7 (4.3)

6 수출 유망 품목 : 보안관련 제품

1) 세계 및 국내 시장환경

▶ 세계 정보보안(IT Security) 시장은 '11년 전년 대비 11.6% 증가한 6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두자리 수의 성장이 기대

○ 정보보안 산업은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크게 보안 관련 H/W, S/W, 서비스로 구성(지경부, 2010. 12)

○ 정보보안 제품(HW와 SW의 합계)은 정보보안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S/W 시장은 202억 달러로 HW의 94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성장률(2010~'13년 CAGR)도 H/W가 7.7%인데 반해 S/W는 10.2%로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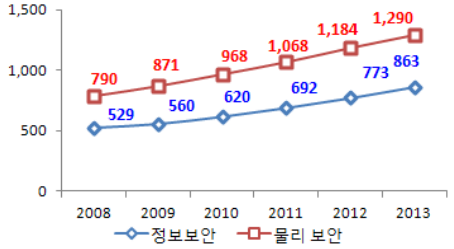
○ Symantec은 '09년 세계 정보보안제품 시장에서 31.5억 달러, 점유율 12.6%로 1위이며, 상위 5위까지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IDC 2011)

※ 세계 정보보안시장 점유율(억 달러, %): McAfee(19.3, 7.7), Cisco(18.0, 7.2), IBM(10.8, 4.3), Trend Micro(10.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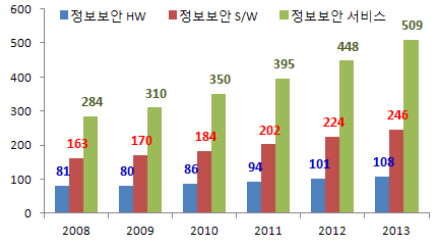
▶ 테러, 범죄 등의 보안 수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세계 물리보안 시장 역시 2010~'13년 사이 10%대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

○ '11년 물리 보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약 1,068억 달러로 정보보안 시장에 비해 1.5배 크며,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

세계 보안 시장 추이



(가) 보안 시장(억 달러)



(나) 정보보안 시장(억 달러)

자료 : IDC 2011, IDC 2008.

○ 다만,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IP 카메라, 스탠드얼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서 NVR(Network Video Recorder)로 시장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물리 보안시장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진전 중

▶ 세계 감시카메라 시장은 '11년 전년대비 6.7% 늘어난 798만 대가 예상되며, '12년 879만 대 등 2011~'15년 사이 11.8%의 증가가 예상(Yano ICT 2011.08)

○ '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시장은 위축된 반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저가 제품의 약진이 눈에 띄며, 향후 중국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IP 카메라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여 유망시장으로 주목

※세계 감시카메라 출하대수(백만대): '08(7.2)→'09(6.8)→'10(7.5)→'11(8.0)→'12(8.8)→'13(9.7)→'15(12.1)

○ 그 중에서 IP 카메라 시장은 2010년 14.4억 달러에서 '11년 무려 45.8% 증가한 21억 달러로 예상되며, 머지않아 아날로그 카메라 시장을 추월할 전망

※ IP카메라 시장증가율(%, Fubon Research 2011.04): '07(37.5)→'08(36.4)→'09(46.7)→'10(30.9)→'11(45.8)

○ 일본의 경우 '11년 아날로그 카메라 시장은 201억 엔으로 IP카메라 시장 155억엔보다 크지만, '13년부터 역전될 전망('14년 IP 카메라시장 212억엔, 아날로그 카메라시장 158억엔, 富士經濟 2011.07)

○ 최근 세계 보안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데 IP카메라 시장에서는 Axis가 33.5%로 선두를 유지

※ 세계 IP카메라 시장점유율(%, Fubon Research 2011.04): Sony(10.4), Panasonic PCC(8.4), Mobotix(7.3), Panasonic System(5.4), D-Link(5.3)

▶ DVR 시장은 DVR 카드, PC-based DVR, 임베디드 DVR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숙시장인 임베디드 DVR은 3~5%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DVR 카드와 PC-based DVR은 '11년 각각 11.7%, 11%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예상

○ 세계 DVR 시장은 Nice(15.8%)와 Pelco(11.1%)만이 10%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Top 10에 속하는 나머지 8개 기업은 3.5%에서 7.5%를 유지(Verint 7.4%, Mitsubishi 6.3%, Tyco 5.5%, Honeywell 4.8%, Geutebru 4.4%)

2)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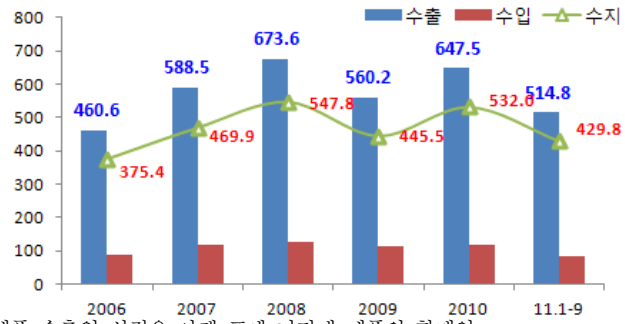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보안관련 제품 수출은 '06년 약 4.6억 달러에서 '10년 6.5억 달러로 동 기간 8.9%의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전년대비 16.8%나 감소했으나, '10년에는 15.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전년도의 수출액 수준에 거의 육박

※ 올 9월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한 5.1억 달러 기록 중

보안관련 제품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보안관련 제품 수출입 실적은 아래 표에 나타낸 제품의 합계임

○ CCTV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력 보안제품 수출품목으로 '10년 약 2.9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9월 누적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20.8%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 중이어서 연말에는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물리보안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IP 카메라 수출은 '10년 전년의 170만 달러에서 760만 달러로 340%나 늘었으며, '9월 누적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무려 310% 증가한 1,110만 달러를 기록 중이어서 아직 수출액은 작지만 후속 유망제품으로 성장 중

○ 또 하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보안제품인 DVR 수출은 '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대폭 감소한 후 '10년 2.8억 달러로 약간 늘어났으나, 9월 누적으로 약 9% 나

감소하는 등 당분간 하향 정체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보안제품 수출증가세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반면에, NVR은 아직 금액은 많지 않지만 9월 누적 전년동기 대비 약 30% 가량 늘어난 160만 달러를 기록

주요 제품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2007	2008	2009	2010	11.1-9	2007	2008	2009	2010	11.1-9
감시 카메라										
CCTV	233.2	278.9	249.3	294.9	257.2	34.1	38.5	35.6	47.5	32.2
IP 카메라	0.4	1.0	1.7	7.6	11.1	0.2	0.4	0.3	0.5	0.5
영상 녹화장치										
DVR	310.7	329.5	257.2	281.0	192.3	23.9	20.0	18.3	16.5	11.6
NVR	1.4	1.5	1.6	1.3	1.6	0.2	0.2	0.2	0.3	0.1
입·출입 관리 시스템										
생체인식	16.7	23.0	19.4	29.0	24.3	2.9	3.3	9.4	5.5	5.5
입출입 관리	3.4	13.1	6.3	5.6	3.7	1.8	1.6	1.4	1.6	1.8
영상전화기	12.3	8.3	6.7	4.6	1.3	0.6	8.8	3.1	2.1	1.2
디지털 도어록	-	10.6	11.5	11.8	9.8	-	2.8	1.1	2.9	2.4
경보기	7.7	5.2	5.0	7.4	4.4	36.2	26.2	30.6	23.3	14.5
정보보안 H/W										
침입 탐지·차단	0.3	0.5	0.2	0.8	1.8	1.3	2.0	1.3	0.8	0.1
정보보호	2.4	2.0	1.3	3.4	7.2	17.3	22.1	13.4	14.3	15.0
계	588.5	673.6	560.2	647.5	514.8	118.5	125.8	114.7	115.5	84.8

주) 1. 영상 전화기(8517692000), 디지털 도어록(8301401010), 경보기(도난 853101000, 가스 8531103000, 화재 8531102000의 합계)만 HSK 코드 실적이며, 나머지 품목은 추정 값임
2. 생체인식에는 생체인식과 지문인식 시스템이 포함된 값이고, 정보보호시스템에는 방화벽 등 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으나 백신 S/W 등 S/W는 미포함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동작업

○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디지털 도어록 수출은 '10년 1,18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9월 누적 약 20% 증가한 980만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 생체(지문포함) 인식 시스템 역시 규모는 작지만 꾸준하게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10년 약 2,900만 달러를 수출했고, 9월 누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약 35% 가까이 늘어난 2,430만 달러를 기록 중

○ 수입이 더 많지만 정보보호 시스템의 수출도 '09년 130만 달러에서 '10년 340만 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올 9월 누적으로는 이미 전년도의 수출실적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20만 달러를 기록 중

▶ 보안관련 제품의 수입은 '07년 이후 약 1.2억 달러 전후에서 횡보 중

○ 올 9월 누적으로도 전년동기에 유사한 약 8,5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제품별로는 CCTV, DVR, 경보기 등은 감소한 반면, 입출입 관리 시스템과 정보보호 시스템의 수입은 증가

▶ '09년 약 4.4억 달러로 흑자폭이 감소했다가 '10년 5.3억 달러로 다시 회복되었으며, 금년에도 약 5억 달러대의 흑자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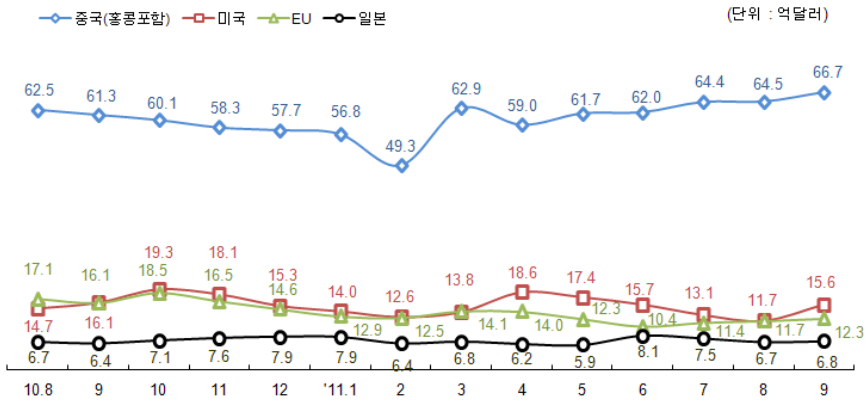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CCTV, DVR, 입출입 관리시스템 등 물리보안 제품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흑자를 창출해 오고 있으나, 시장의 흐름이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파고를 제대로 타지 못할 경우 수출특화의 위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가 열세인 정보보안 제품은 최근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

※ 정보보호시스템 수지 추이(백만 달러) : '07(14.9)→'08(△20.1)→'09(△12.1)→'10(△11.0)→'1109(△7.7)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포함) : 66.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8.8% 증가

▶ 휴대폰(5.5억 달러, 21.3%↑)과 TV(1.6억 달러, 9.2%↑) 수출은 부분품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패널(20.0억 달러, 11.1%↑)은 3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 반면, 반도체(25.2억 달러, △3.2%)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 달(△13.7%)보다 감소율이 완화

○ 對중국 IT수출은 27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

중국(홍콩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금액		61.3	60.1	58.3	57.7	56.8	49.3	62.9	59.0	61.7	62.0	64.4	64.5	66.7
(증감률)		(19.5)	(16.9)	(15.9)	(12.0)	(8.5)	(5.5)	(9.3)	(3.5)	(5.5)	(5.1)	(3.3)	(3.1)	(8.8)
	중국	47.2	47.4	45.6	44.0	43.1	38.3	47.4	44.3	47.4	48.1	50.3	49.0	50.6
		(16.9)	(19.1)	(17.0)	(6.6)	(2.4)	(4.9)	(3.5)	(△2.2)	(3.2)	(4.9)	(3.8)	(△0.4)	(7.0)
	홍콩	14.1	12.7	12.8	13.7	13.7	11.0	15.5	14.7	14.3	13.9	14.1	15.5	16.2
		(28.8)	(9.4)	(12.1)	(33.6)	(33.1)	(7.9)	(31.9)	(25.5)	(13.9)	(5.7)	(1.6)	(16.1)	(14.7)

2 미국 : 15.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8% 감소

▶ 휴대폰 수출 증감률은 지난달 -26.4%에서 -6.9%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었고, TV부분품(0.3억 달러, 177.4%↑), 프린터(0.3억 달러, 18.3%↑) 등 수출은 증가세

○ 반면, 반도체(2.0억 달러, △34.9%), 패널(0.1억 달러, △74.5%)등 부품 수출은 감소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금액	16.1	19.3	18.1	15.3	14.0	12.6	13.8	18.6	17.4	15.7	13.1	11.7	15.6
(증감률)	(21.2)	(42.2)	(33.0)	(24.2)	(15.6)	(△4.3)	(△3.3)	(26.0)	(17.3)	(△0.1)	(△21.1)	(△20.4)	(△2.8)

3 EU : 12.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3.3% 감소

▶ 휴대폰(1.2억 달러, △56.0%)을 비롯해, 반도체(2.2억 달러, △43.1%), 패널(3.5억 달러, △28.8%) 등은 부진한 반면, TV부분품(1.4억 달러, 4.4%↑) 수출은 증가로 전환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금액	16.1	18.5	16.5	14.6	12.9	12.5	14.1	14.0	12.3	10.4	11.4	11.7	12.3
(증감률)	(3.8)	(3.2)	(△2.7)	(△3.1)	(△2.3)	(△8.9)	(△9.6)	(△9.5)	(△23.2)	(△34.7)	(△25.9)	(△31.3)	(△23.3)

4 일본 : 6.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

▶ 반도체(2.8억 달러, △17.4%), 패널(0.2억 달러, △76.5%) 등 부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 수출(1.4억 달러, 389.2%↑)이 對일본 IT수출을 주도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금액	6.4	7.1	7.6	7.9	7.9	6.4	6.8	6.2	5.9	8.1	7.5	6.7	6.8
(증감률)	(△5.0)	(10.6)	(19.0)	(32.5)	(53.1)	(22.2)	(10.8)	(7.0)	(△5.1)	(19.7)	(1.1)	(△0.8)	(6.7)

5 기타 국가

▶ 신흥 국가 중 동유럽(8.1억 달러, △17.4%)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증가

○ ASEAN(14.8억 달러, 24.3%↑), 중남미(8.1억 달러, 7.0%↑), 중동(3.6억 달러, 5.8%↑) 등 신흥시장 수출은 증가세 지속

3. 수입 및 수지 동향

▶ 9월 IT수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장비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6.5% 증가한 69.5억 달러를 기록

○ 최대 IT수입 품목인 전자부품(40.2억달러, 4.4%↑) 수입과 국내 통신망 투자확대로 네트워크장비 수입은 4.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73% 증가

-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6.9억 달러, △13.4%) 및 휴대폰(4.0억 달러, △8.7%)은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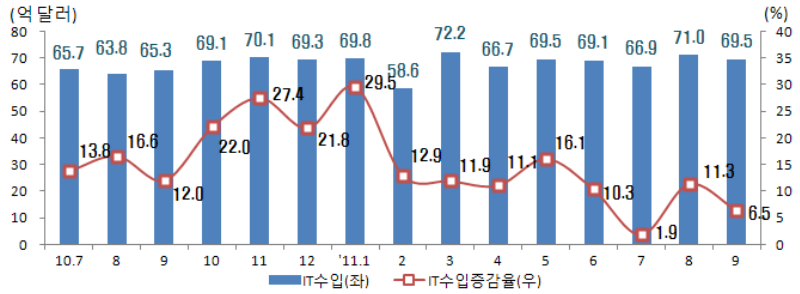
○ 일본(10.7억 달러, 1.1%↑), 싱가포르(4.3억 달러, 1.3%↑) 수입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회복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24.1억 달러, △0.8%), 대만(8.7억 달러, △1.3%) 등은 감소세 지속

'11.9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40.2	(4.4)	6.9	(△13.4)	10.0	(13.6)	69.5	(6.5)
중국(홍콩포함)	11.2	(△10.0)	4.3	(△13.2)	2.2	(13.6)	24.1	(△0.8)
일본	7.3	(2.9)	0.4	(△11.3)	2.2	(3.0)	10.7	(1.1)
미국	4.3	(32.4)	0.4	(△55.0)	2.1	(16.9)	7.3	(15.3)
대만	7.1	(0.7)	0.1	(15.2)	0.1	(152.6)	8.7	(△1.3)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7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14.4억 달러)창출에 기여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전체	44.1	63.4	25.9	40.9	26.0	21.4	25.5	43.6	21.1	18.6	48.9	4.8	14.4
IT산업	69.2	71.8	65.9	61.1	58.5	53.0	62.6	66.2	64.0	63.2	63.9	59.7	71.1

○ **(품목별)** 휴대폰(16.4억 달러)은 수출 감소로 흑자가 소폭 감소한 반면, 패널(21.9억 달러), 반도체(18.0억 달러)는 흑자가 증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휴대폰	16.7	21.7	21.6	17.8	17.9	15.5	15.7	19.1	19.7	17.8	18.9	17.3	16.4
반도체	20.6	16.5	13.5	14.7	12.3	12.3	17.0	15.5	14.3	16.5	12.2	12.7	18.0
패 널	22.8	23.0	21.4	21.0	20.2	17.9	21.5	20.8	21.4	20.1	19.6	19.4	21.9
TV	6.4	6.1	5.5	5.1	6.1	5.8	6.9	6.1	5.9	6.2	8.4	7.6	7.5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2.6억 달러), 미국(8.4억 달러), EU(7.4억 달러) 흑자는 모두 증가하였고, 對일 적자는 3.9억 달러로 감소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9
중국(홍콩)	37.0	33.9	31.3	33.3	29.7	27.7	34.6	34.0	34.9	36.1	40.5	37.7	42.6
EU	11.9	13.9	11.6	9.6	8.1	8.2	8.0	8.4	6.8	4.2	6.4	6.9	7.4
미국	9.8	12.5	11.4	7.9	7.8	7.3	7.4	12.4	10.0	9.0	6.0	4.0	8.4
일본	△4.3	△2.8	△2.5	△2.8	△1.8	△2.6	△3.8	△3.4	△3.6	△2.3	△3.2	△4.3	△3.9

4. 2011년 9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1/4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4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3/4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4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1월	307.4	110.3	59.5	315.4	53.9	31.2	−8.0	56.4
2월	330.4	106.7	39.0	310.4	51.9	31.8	20.0	54.8
3월	373.1	127.2	44.8	355.8	64.5	38.2	17.3	62.6
4월	393.0	125.9	33.3	355.2	60.0	17.8	37.8	65.9
5월	388.9	127.8	32.5	348.5	59.9	22.0	40.3	67.9
6월	420.5	130.2	28.3	352.5	62.7	16.7	67.9	67.6
7월	404.2	135.5	24.7	354.2	65.7	13.8	50.0	69.9
8월	364.8	133.9	26.4	352.7	63.8	16.6	12.1	70.1
9월	**394.1**	**134.5**	**13.7**	**350.0**	**65.3**	**12.0**	**44.1**	**69.2**
10월	433.4	141.0	17.2	370.0	69.1	22.0	63.4	71.8
11월	412.6	136.0	16.0	386.7	70.1	27.4	25.9	65.9
12월	441.5	130.4	15.5	400.6	69.3	21.8	40.9	61.1
2011년	4,159.5	1,175.5	3.8	3,935.2	613.3	12.0	224.3	562.1
1/4	1,309.9	374.7	8.9	1,237.1	200.6	17.8	72.9	174.1
2/4	1,427.2	398.7	3.8	1,343.8	205.3	12.5	83.4	193.4
상반기	2,737.1	773.3	6.2	2,580.9	405.9	15.0	156.2	367.4
3/4	1,422.4	402.1	−0.4	1,354.3	207.4	6.5	68.1	194.7
1월	444.7	128.2	16.3	418.8	69.8	29.5	26.0	58.5
2월	384.8	111.6	4.7	363.4	58.6	12.9	21.4	53.0
3월	480.4	134.8	6.0	454.9	72.2	11.9	25.5	62.6
4월	485.5	132.9	5.5	441.8	66.7	11.1	43.6	66.2
5월	474.2	133.5	4.5	453.1	69.5	16.1	21.1	64.0
6월	467.5	132.3	1.6	448.9	69.1	10.3	18.6	63.2
7월	491.8	130.8	−3.5	442.9	66.9	1.9	48.9	63.9
8월	459.4	130.7	−2.4	454.6	71.0	11.3	4.8	59.7
9월	**471.2**	**140.7**	**4.6**	**456.8**	**69.5**	**6.5**	**14.4**	**71.1**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9월 당월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4,065	4.6	117,546	3.8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2,247	0.5	103,251	1.0	87.8
○전자부품	91,302	45.6	59.3	8,038	−2.1	66,378	−2.8	56.5
− 반도체	50,707	63.4	32.9	4,589	−3.8	37,490	−0.7	31.9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1,861	−30.0	18,379	−15.9	15.6
· 시스템반도체	16,093	30.9	10.5	2,127	39.1	13,883	20.8	11.8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2,758	−3.7	23,279	−8.7	19.8
− 전자관	279	−11.4	0.2	17	−18.2	163	−28.8	0.1
− 수동부품	1,599	39.0	1.0	142	3.6	1,228	1.7	1.0
− 접속부품	4,201.5	32.6	2.7	443	26.5	3,538	13.7	3.0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12	71.2	81	38.1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733	24.6	5,597	1.0	4.8
− 컴퓨터	1,009	114.5	0.7	215	200.5	990	112.7	0.8
− 주변기기	5,418	2.9	3.5	432	3.7	3,697	−10.6	3.1
· HDD	1,405	2.9	0.9	27	−76.7	444	−59.8	0.4
· 프린터	1,142	20.2	0.7	117	21.6	938	11.3	0.8
· 모니터	2,307	−7.9	1.5	168	4.3	1,427	−20.1	1.2
−컴퓨터부품	1,091	1.8	0.7	70	−17.4	766	−5.8	0.7
−SW 및 콘텐츠	191	10.4	0.1	16	3.6	144	10.8	0.1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292	−2.6	21,726	12.3	18.5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272	−1.7	21,552	12.4	18.3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88	−18.9	794	−9.1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185	−0.9	20,758	13.5	17.7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2,042	−3.1	19,782	14.2	16.8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19	−51.0	174	1.0	0.1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1,048	15.6	8,356	5.1	7.1
− 영상기기	8,025	39.9	5.2	818	16.2	6,596	7.4	5.6
·TV	7,452	42.6	4.8	775	18.1	6,217	8.2	5.3
LCD TV	649	15.6	0.4	84	39.9	649	33.3	0.6
TV 부분품	6,460	49.4	4.2	661	16.4	5,302	6.1	4.5
− 음향기기	1,082	7.7	0.7	114	18.5	854	3.7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116	9.1	906	−7.9	0.8
· 셋탑박스	762	12.2	0.5	53	−6.4	413	−24.0	0.4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36	0.7	1,195	15.0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818	44.0	14,295	29.8	12.2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433	36.3	3,717	35.1	3.2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449	29.2	3,715	9.3	3.2
· 냉장고	2,318	29.9	1.5	235	36.0	1,969	13.0	1.7
· 세탁기	685	5.8	0.4	62	21.1	505	−2.9	0.4
· 에어컨	286	11.9	0.2	19	39.1	299	25.6	0.3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43	27.3	361	15.1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894	58.4	6,502	42.8	5.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59	29.7	3,688	22.3	3.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9월 당월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6,953	6.5	61,333	12.0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5,954	5.3	52,542	11.4	85.7
○전자부품	44,363	18.8	58.7	4,018	4.4	34,868	7.7	56.9
− 반도체	31,137	17.0	41.2	2,793	3.2	24,423	7.7	39.8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529	−14.7	5,208	25.4	8.5
· 시스템반도체	18,442	4.1	24.4	1,679	11.0	14,131	4.6	23.0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570	−2.1	4,995	4.8	8.1
− 전자관	118	−24.4	0.2	6	−15.0	61	−33.7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46	5.5	1,336	5.0	2.2
− 접속부품	3,685	26.0	4.9	373	19.1	3,011	10.1	4.9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32	181.3	190	99.1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693	−13.4	7,109	4.8	11.6
− 컴퓨터	3,078	57.4	4.1	226	−18.6	2,505	13.9	4.1
− 주변기기	3,429	19.8	4.5	284	−7.2	2,743	8.9	4.5
· HDD	770	19.9	1.0	61	−8.6	594	2.7	1.0
· 프린터	1,066	23.8	1.4	97	0.5	920	18.2	1.5
· 모니터	1,002	17.2	1.3	69	−22.0	696	−5.2	1.1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35	−22.6	1,421	−14.1	2.3
−SW 및 콘텐츠	592	5.5	0.8	48	14.0	440	6.5	0.7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911	39.9	7,291	55.1	11.9
− 통신기기	6,756	25.0	8.9	894	40.6	7,198	56.4	11.7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190	51.3	1,934	81.5	3.2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704	38.0	5,264	48.9	8.6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405	−8.7	3,960	40.6	6.5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16	10.8	93	−6.2	0.2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23	7.3	2,096	−3.3	3.4
− 영상기기	940	9.1	1.2	80	19.6	675	−3.1	1.1
·TV	198	1.8	0.3	22	47.9	155	0.3	0.3
LCD TV	17	27.8	0.0	2	22.7	43	241.3	0.1
TV 부분품	152	1.8	0.2	20	84.0	108	−10.0	0.2
− 음향기기	1,368	8.7	1.8	112	4.3	1,049	2.8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31	−7.5	372	−17.5	0.6
· 셋탑박스	108	298.8	0.1	8	35.6	98	20.8	0.2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09	−25.4	1,179	2.6	1.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999	13.6	8,790	16.0	14.3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682	10.7	5,928	15.5	9.7
○가정용 기기	899	19.6	1.2	86	29.5	855	32.5	1.4
· 냉장고	83	19.5	0.1	10	29.0	67	6.1	0.1
· 세탁기	71	32.7	0.1	5	−15.5	45	−20.4	0.1
· 에어컨	32	14.2	0.0	2	73.5	84	223.0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9	−11.7	76	−29.4	0.1
○전기 장비	2,339	13.8	3.1	222	18.9	1,931	14.0	3.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20	21.4	999	20.5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9월 당월			1~9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4,065	6,953	7,112	56,214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2,247	5,954	6,293	50,709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8,038	4,018	4,020	31,510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4,589	2,793	1,795	13,067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1,861	529	1,333	13,171
· 시스템반도체	16,093	18,442	-2,349	2,127	1,679	448	-247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2,758	570	2,188	18,285
- 전자관	279	118	161	17	6	11	102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42	146	-4	-107
- 접속부품	4,202	3,685	517	443	373	70	527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12	32	-21	-109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733	693	40	-1,512
- 컴퓨터	1,009	3,078	-2,069	215	226	-11	-1,516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432	284	148	954
· HDD	1,405	770	635	27	61	-34	-151
· 프린터	1,142	1,066	76	117	97	19	18
· 모니터	2,307	1,002	1,304	168	69	99	731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70	135	-65	-655
-SW 및 콘텐츠	191	592	-401	16	48	-32	-296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292	911	1,381	14,435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272	894	1,378	14,354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88	190	-102	-1,139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185	704	1,481	15,494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2,042	405	1,637	15,822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19	16	3	81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1,048	223	824	6,260
- 영상기기	8,025	940	7,085	818	80	738	5,921
·TV	7,452	198	7,254	775	22	753	6,063
LCD TV	649	17	631	84	2	83	606
TV 부분품	6,460	152	6,308	661	20	641	5,194
- 음향기기	1,082	1,368	-286	114	112	2	-19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116	31	84	534
· 셋탑박스	762	108	654	53	8	45	315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36	109	27	16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818	999	819	5,505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433	682	-249	-2,211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449	86	363	2,860
· 냉장고	2,318	83	2,235	235	10	224	1,902
· 세탁기	685	71	614	62	5	57	461
· 에어컨	286	32	254	19	2	17	215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43	9	33	285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894	222	672	4,57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59	120	339	2,689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9월 당월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4,065	4.6	117,546	3.8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9,583	10.6	79,073	7.9	67.3
- 중 국	54,319	38.1	35.3	5,057	7.0	41,836	3.0	35.6
- 홍 콩	15,010	39.0	9.8	1,617	14.7	12,885	16.1	11.0
- 일 본	7,851	18.7	5.1	681	6.7	6,231	11.5	5.3
- ASEAN	13,809	29.4	9.0	1,485	24.3	11,137	11.3	9.5
· 싱가폴	5,643	20.2	3.7	533	12.3	4,299	5.2	3.7
· 인 니	952	8.6	0.6	73	0.8	672	-8.5	0.6
· 말 련	2,415	23.1	1.6	193	1.7	1,602	-12.1	1.4
· 태 국	1,136	14.5	0.7	97	8.8	916	8.5	0.8
- 대 만	6,420	45.7	4.2	543	-0.5	5,432	16.6	4.6
- 인 도	1,537	16.4	1.0	160	33.4	1,271	16.7	1.1
○ 북미	19,588	16.8	12.7	1,658	-2.9	14,096	0.8	12.0
- 미 국	18,508	15.9	12.0	1,563	-2.8	13,257	0.2	11.3
- 캐나다	879	39.3	0.6	76	-7.3	695	17.1	0.6
○ 유럽	21,132	12.6	13.7	1,492	-18.1	12,918	-16.4	11.0
- EU	18,787	10.3	12.2	1,232	-23.3	11,153	-19.4	9.5
· 영 국	1,496	-13.0	1.0	72	-37.4	844	-19.0	0.7
· 독 일	3,302	13.5	2.1	198	-29.9	1,924	-22.4	1.6
· 프랑스	931	-23.9	0.6	50	-25.0	559	-2.9	0.5
· 이탈리아	755	28.7	0.5	34	-44.4	468	0.3	0.4
- 러시아	1,535	43.2	1.0	146	0.4	1,005	-4.7	0.9
○ 중동	3,876	28.6	2.5	361	5.8	3,435	24.6	2.9
- 사우디	429	6.7	0.3	45	24.6	492	58.9	0.4
- UAE	1,269	45.4	0.8	123	-3.5	1,140	34.3	1.0
○ 중남미	8,420	13.3	5.5	808	7.0	6,700	1.8	5.7
- 브라질	2,429	21.0	1.6	231	14.6	2,268	17.0	1.9
- 멕시코	5,188	5.9	3.4	487	0.5	3,670	-8.7	3.1
- 칠 레	195	5.1	0.1	15	-3.8	172	12.9	0.1
○ 대양주	1,020	2.8	0.7	95	3.7	806	16.5	0.7
- 호 주	944	4.2	0.6	84	-1.5	725	13.3	0.6
○ 아프리카	635	11.6	0.4	65	16.3	502	7.9	0.4
○ 브 릭 스	59,821	36.8	38.9	5,594	7.8	46,381	3.7	39.5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9월 당월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6,953	6.5	61,333	12.0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5,598	5.0	49,227	11.8	80.3
- 중 국	26,311	32.4	34.8	2,353	-0.2	22,104	17.2	36.0
- 홍 콩	950	32.9	1.3	56	-22.7	831	27.8	1.4
- 일 본	11,952	15.7	15.8	1,075	1.1	9,127	2.7	14.9
- ASEAN	11,858	4.3	15.7	945	-0.9	9,164	6.3	14.9
· 싱가폴	5,255	-11.1	6.9	429	1.3	4,097	10.1	6.7
· 인 니	415	40.5	0.5	33	12.9	346	13.8	0.6
· 말 련	2,689	18.8	3.6	208	-0.0	2,084	4.6	3.4
· 태 국	1,556	19.8	2.1	130	-0.0	1,240	8.0	2.0
- 대 만	9,698	41.7	12.8	869	-1.3	7,658	9.8	12.5
- 인 도	43	14.4	0.1	3	-3.2	34	10.8	0.1
○ 북미	8,068	17.7	10.7	758	14.9	6,302	7.5	10.3
- 미 국	7,660	19.1	10.1	727	15.3	6,027	8.4	9.8
- 캐나다	234	4.5	0.3	17	-9.0	153	-8.5	0.2
○ 유럽	5,733	14.0	7.6	526	13.4	5,037	21.1	8.2
- EU	5,134	12.9	6.8	492	17.5	4,696	27.4	7.7
· 영 국	391	10.6	0.5	46	44.1	344	20.5	0.6
· 독 일	2,341	20.8	3.1	208	12.5	1,898	12.7	3.1
· 프랑스	660	-9.8	0.9	46	-28.3	501	4.6	0.8
· 이탈리아	260	15.7	0.3	21	-1.2	200	3.2	0.3
- 러시아	89	128.7	0.1	1	-81.2	11	-86.9	0.0
○ 중동	434	-12.4	0.6	25	-25.3	256	-18.2	0.4
- 사우디	1	449.8	0.0	0	144.9	1	-48.6	0.0
- UAE	4	-37.1	0.0	1	245.3	9	168.8	0.0
○ 중남미	441	21.5	0.6	37	1.4	400	27.8	0.7
- 브라질	16	-6.8	0.0	3	108.7	18	78.1	0.0
- 멕시코	420	22.1	0.6	34	-0.1	376	25.1	0.6
- 칠 레	2	236.2	0.0	0	-98.8	1	43.5	0.0
○ 대양주	107	16.3	0.1	10	9.4	98	29.3	0.2
- 호 주	95	15.7	0.1	9	29.1	87	30.3	0.1
○ 아프리카	17	58.0	0.0	1	-31.1	9	-38.0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360	-0.2	22,167	16.8	36.1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9월 당월			1~9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4,065	6,953	7,112	56,214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9,583	5,598	3,985	29,846
- 중 국	39,344	19,868	19,476	5,057	2,353	2,703	19,732
- 홍 콩	10,802	715	10,087	1,617	56	1,561	12,054
- 일 본	6,617	10,333	-3,716	681	1,075	-394	-2,896
- ASEAN	10,673	11,369	-696	1,485	945	540	1,973
· 싱가폴	4,693	5,912	-1,219	533	429	104	201
· 인 니	876	295	581	73	33	39	326
· 말 련	1,963	2,263	-300	193	208	-15	-481
· 태 국	992	1,299	-306	97	130	-33	-324
- 대 만	4,407	6,845	-2,438	543	869	-326	-2,226
- 인 도	1,320	38	1,283	160	3	157	1,237
○ 북미	16,764	6,855	9,909	1,658	758	900	7,795
- 미 국	15,973	6,433	9,540	1,563	727	836	7,230
- 캐나다	631	224	407	76	17	59	541
○ 유럽	18,759	5,029	13,730	1,492	526	966	7,880
- EU	17,037	4,548	12,489	1,232	492	741	6,456
· 영 국	1,718	353	1,365	72	46	26	500
· 독 일	2,910	1,938	972	198	208	-10	26
· 프랑스	1,224	731	492	50	46	4	57
· 이탈리아	587	225	362	34	21	13	268
- 러시아	1,071	39	1,033	146	1	146	995
○ 중동	3,013	495	2,518	361	25	336	3,179
- 사우디	402	0	402	45	0	45	491
- UAE	873	7	866	123	1	122	1,130
○ 중남미	7,435	363	7,072	808	37	771	6,300
- 브라질	2,008	17	1,991	231	3	229	2,250
- 멕시코	4,897	344	4,553	487	34	453	3,294
- 칠 레	185	0	185	15	0	15	171
○ 대양주	992	92	900	95	10	85	708
- 호 주	906	83	823	84	9	75	638
○ 아프리카	569	11	558	65	1	65	493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5,594	2,360	3,235	24,213